

십자가 상징의 예술철학

Die Kunstphilosophie
des Symbols Kreuz

— 원형 테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

전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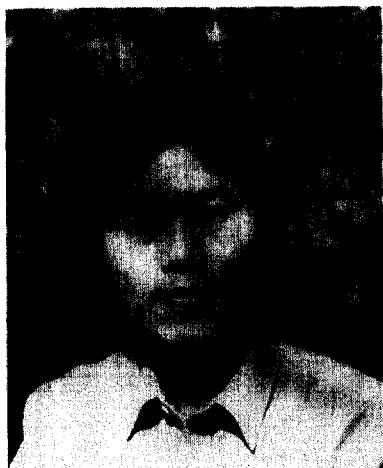
서 론

I. 십자가 상징학의 전역사(前歷史)

II. 기독교적 십자가의 상징학: 그 형태와 개념사(概念史)

III. 원형의 테를 지닌 십자가의 상징과 의미

결 론



전광식,
남덕유산 아래 화림동 계곡의 새들마을에서 태어나 부산
에서 신학, 기독교 교육학, 철학(고신대, M.Div, M.A.)
을 공부하고 대구에서 신학교 강의와 교회 봉사를 하다
가 1985년 봄에서 90년 봄까지 독일의 Regens-
burg(Ph.D.), München대, 영국의 Oxford대학에서 고대철
학과 독일 관념론을 전공하다. 현재 고신대학에서 철학
및 기독교 철학 담당교수로 봉직하고 있고 본지 「통합연
구」 편집인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는 「Die Geiston-
tologie und das Transzendenzproblem bei Platon und
Hegel」, 「서구의 황혼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이 있다.

Abstract

Der Mensch ist homo symbolificus.

Durch Symbole erwies er sein religiöses Gedankengut bzw. seinen weltanschaulichen Charakter.

Die Christliche Kunst hat sich hauptsächlich durch Erschaffung und Benutzung der symbolischen Zeichen, Gestalten und Figuren entwickelt. Unter der christlichen Ikonographien ist das Symbol 'Kreuz' am bedeutendsten, wichtigsten und universalisten, weil es das Kreuz Jesu christi oder gerade den gekreuzigten Jesus Christus dedeutet und ferner das christliche Evangelium oder das Christentum selbst vorstellt.

Dieser Aufsatz gliedert sich in drei Hauptteilen:

1. Die Vorgeschichte der Symbolik von Kreuz:

Im vorchristlichen Zeitalter symbolisiert das unter den verschiedenen Völkern und in den verschiedenen Arten und Weisen benutzten Symbol 'Kreuz' Ornament, Schlange, Kosmos, die vier Jahreszeiten bzw. Himmelsrichtungen, das Leben bzw. Lebensschlussel, die Sonne bzw. das Licht usw. Das Kreuz ist auch das Symbol von Einbeit, Synthese, Harmonie, Vermittlung bzw. Vermittler, Siege und Weltbeherrschung und Vollkommenheit usw.

2. Die Symbolik des christlichen Kreuzes: seine Gestalten und Begriffsgesch

Die am häufigsten benutzten Formen des Christlichen Kreuzes ist vier wie folgendes: *crux quadrata*, *crux immissa*, *crux decussata*, *crux commissa*. Die anfänglichen Gestalten des Kreuzes waren relativ einfach. Wenn immer das Kreuz sowohl von der westlichen Kirche als auch von der östlichen Orthodoxie im Mittelalter für Verwendung zu ihren religiösen Zeremonien bzw. Kunstwerken gebracht worden war, wurde es desto prachtvoller und dekorativer.

Es ist sehr bedauerlich, daß das Kreuz Jesu Christi seit diesem Mittelalter nur zu einem Schmuckstück gefallen war.

3. Die Symbolik und die Bedeutung des den Kreisförmigen Rahmen habenden Kreuzes

Das den Kreisförmigen Rahmen habenden Kreuz, deren Gestalten auch verschieden sind, war in der Christlichen Ikonographie erst im 5. Jahrhundert erschienen und wurde hauptsächlich bis zum 12. Jahrhundert dauert. Dieses Kreuz stellt einerseits das kosmologische Gedankengut und andererseits das Christologischen Gedankengut dar. In diesem Fall bedeuten das Kreuz und der Kreis Jesus Christus, aber jeweils als den Erlöser und als den Herr über den Kosmos. Die beide stellt jeweils Menschheit und Gottheit Jesu Christi, seine Niedrigkeit und Erhöhung.

서론

인간은 상징적 동물(homo symbolificus)이다.¹⁾

인간이 상징적 동물임은 무엇보다 그의 예술적 활동에서 드러나고 그것도 종교예술에서 두드러진다. 갖가지 상징을 통하여 어떤 특정한 종교와 신앙을 나타내고 그 상징을 가지고 갖가지 Ikonographie로 만들어 낸다. 기독교 예술도 상징을 통해 전개되었다. 고대 히브리 종교는 아예 성막이나 성전같은 몇 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예술 자체를 십계명에서 금한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거부했다.

그리고 그 후 기독교도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또 지고하시므로 직접적 묘사를 할 수 없었고, 다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묘사하는 작품들만 자유롭게 전개시켰다. 많은 기독교적 상징 가운데 십자가형은 기독교 상징의 으뜸이었다.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했다. 십자가는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지닌 십자가가, 또 어린양과 십자가와 함께 나오기도 했다. 십자가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었고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의 복음과 그의 복음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상징이었다. 다른 기독교적 상징도 그러하겠지만 십자가형도 고대의 형태들을 도입한 것이 많았다.²⁾

1) 'Homo symbolificus'는 인간을 규정하는 고전적인 개념어는 아니지만 이미 이런 의미로 인간을 설명하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다.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W. Percy의 *The Message in the Bottle*, 3rd. New York, 1977, 17에서였다.

2) W. Drexelius, *Formen der Kunst, Teil II, Die Formen im Mittelalter*, München 1974, 107.

십자가는 처음에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우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카타콤 등에서 기독교 예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것은 거의 기독교화되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단순하고 일정한 형태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다양한 형태들 가운데, 우리는 원형의 테를 지닌 십자가를 우리의 주제로 선정하여 본고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와 달리 원형의 테가 둘러싸인 십자가이고, 또 이런 테는 고대 다른 종교와 문화권에서 종종 발견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근대 중국에 나타나므로 우리 동양인의 시각을 더욱 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 우리는 이 원형의 테를 지닌 십자가의 전역사(前歷史)를 살펴보고 그것이 지니는 다양한 회화적, 신학적, 형이상학적 의미들을 논구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미술사에 하나의 큰 획을 긋고 있는 십자가 미술 가운데 이 특이한 형태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을 통해 고대와 중세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의 십자가의 뜻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신앙인인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I. 십자가 상징화의 전역사(前歷史)

십자가는 인류가 사용한 상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여러 종족과 문화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던 하나의 근본적인 상징이다.

횡선(橫線)과 종선(縱線)의 교차를 지닌 십자가는 각 종족은 자기

나름의 우주관과 세계관, 또 인생관을 표출하고, 또 자기의 신앙과 종교를 나타내는 적절한 상징으로 사용해 왔다.

십자가는 기독교 이전의 형태와 기독교적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도표 I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십자가 형태를 수록해 보았다. 십자가의 원형은 이미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서부터 나타난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잉카와 아즈텍(Aztec)문화권을 공략했을 때 그들은 그 곳의 사원(寺院)들에서 이 십자가를 보았다. 또 고대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미¹⁾의 여러 지역에서도 십자가의 상징은 나타난다. 특히 상고시대(上古時代)의 중국 문화에 이 십자가형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고대 에집트에는 손잡이형 십자가가 나타난다(도표 I의 6번 참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 이전의 십자가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뜻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십자가의 상징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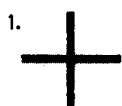
1) 십자가는 무엇보다 단순한 장식의 문양(紋樣)으로 쓰였다.

종선과 횡선의 교차라는 단순한 형태의 기하학적 도형을 이룬다. 그리고 고안의 자유로움 때문에 십자가는 상고시대 이래로 장식의 무늬로 쓰였다. 이런 장식은 특히 예술작품 속에서 많이 사용되었다.²⁾ 이런 문양은 심미적인 측면에서 조화롭게 나타날 뿐 아니라 여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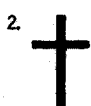
1) 아메리칸 인디언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W. H. Holmes, *The Cross used as a Symbol by the ancient Americans*, in: Trans. of the Anthropological society of America, Washington 1833, vol.ii.

2) cf. W. Berry, *Encyclopaedia Heraldica*는 무려 385가지나 되는 십자가 문양을 소개하고 있다. 장식미술이나 문양학에서가 아니면 이 많은 숫자의 십자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도표 I〉



헬라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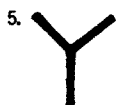
라틴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드레 십자가
기도 십자가



안토니우스 십자가
타우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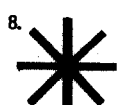
와야후 십자가
포크 십자가, 감도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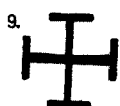
손잡이 십자가
에집트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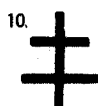
뿔 모양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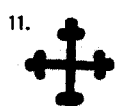
연합 십자가



당목형(檀木形) 십자가



주교 십자가
Lothringen 십자가



클로버 토끼풀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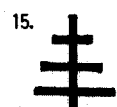
요한 십자가
Maltese 십자가



에루살렘 십자가



반복 십자가



교황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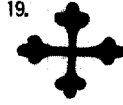
러시아 십자가



보석 십자가



손·발 십자가
Tatzen 십자가



Tolosaner 십자가



추기경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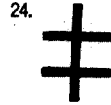
곤봉 십자가
사과 십자가



구슬 십자가



가지 십자가



아중 십자가



아름 십자가



Swastika, 만자 십자가



Sauvasti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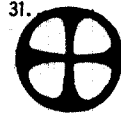
갈구리 십자가



켈트 십자가



바퀴 십자가



제단 십자가



광채 십자가



그리스도 서명 I



그리스도 서명 II



삼위 십자가



태양 십자가

지 상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런 상징적 의미도 없이 삼각형 등과 같이 단순한 장식으로 쓰였던 것이다.

2) 십자가는 뱀(蛇)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에집트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도표 I 의 6번 형이 이것을 상징하는 십자가이고, 이 때의 십자가는 영생불사(永生不死)를 상징한다. 뱀과 십자가의 관련은 광야에서 모세의 십자가에 달린 청동의 뱀을 기억케 한다.

3)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우주(宇宙)나 세계(世界)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할 십자가의 모든 의미는 결국 이 우주의 성격을 규정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의미들은 우주와 세계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의 의미에 거의 수렴된다. 그것은 우주의 상징이며, 또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우주의 법칙들을 나타낸다. 뻗어 있는 네 방향은 하늘의 네 방향을 의미하고, 그것의 중심은 우주의 신비스러운 구심점을 암시한다. 세계도 이 십자가의 모양처럼 위와 아래를 지니며, 폭과 넓이를 지닌다. 성 제롬(St. Jerome)은 “십자가의 형상 그 자체가 네 방향으로 된 세상의 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Ipsa species crucis, quid est nisi forma quadrata mundi?)(Com, in Marcum)이라 하면서 “동쪽은 머리로 표현되고, 북쪽은 오른 팔로, 남쪽은 왼 팔로, 서쪽은 아래 부분으로 표현된다”고 기술했다.

우리의 주제인 원형의 테를 지닌 십자가는 십자가의 모든 형태 가운데 우주와 그것의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낸다. 우리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금 상술할 것이다. 하여튼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그것의

이방적인 전역사(前歷史)에는 우주와 세계, 또 우주의 질서와 세계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주 십자가’(宇宙十字架)요 ‘세계 십자가’(世界十字架)였다.

4) 따라서 십자가는 사계절(四季節)과 사방향(四方向) 내지 사방위(四方位)를 상징한다.

수직의 상하와 수평의 좌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1년 4계절을 뜻하고, 동서남북이라는 4방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네 방향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사회에서 십자가는 풍향계로 쓰였던 것이고, 또 고대 멕시코의 십자가는 바람의 신을 나타낸다.³⁾

5) 십자가는 생명 내지 생명의 열쇠를 상징한다.

타우 십자가(도표 I의 4번)와 소위 ‘에집트 십자가’(6번)는 고대 에집트인들에게서 생명의 열쇠를 상징한다. 특히 후자의 형태는 고대 에집트 왕조의 유물들에서 발견되는데, 흔히 신이나 사제, 또는 왕의 손에서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신들이 이 십자가를 사용하여 사자(死者)들을 새로운 생명에 이끄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반론은 있지만 상형문자로 쓴 글에서 볼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십자가 형상의 표의문자 ↑ (ankh.)는 ‘생명’, ‘생활’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⁴⁾ 이런 ‘생명의 열쇠’를 상징하는 십자가형은 에집트에서 페니키아족과 전 셈족계로 퍼져, 나중에

3) cf. A. Rérielle, *Religious du Mexique*, Paris 1885, 82, 91; Th. Wilson, *The Swastika* Washington, 1896, 933ff.

4) E. M. Coemans, *Manuel de langue égyptienne*, Ghent 1887, 46; 그러나 Wiedemann은 문자 ankh는 단순히 떠나 끈을 뜻하고, ‘생명’이라는 말과 발음이 같은 동음이의어에 불과하고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는 이것이 마법과 주술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갈리아족에게 있어서는 타우 십자가는 망치를 뜻하는 것이 되어 파괴의 상징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예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타우 십자가나 손잡이가 달린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었다.

특히 소위 만자(字)형 내지 감마(gamma)형 십자가는 다른 의미도 있지만 생명을 상징한다. 이 십자가형은 길조, 기원, 축복의 상징이며 생명과 번영의 상징이다. 그런데 그것을 힌두교에서처럼 swastika와(도표 I 의 26번)와 sauvastika(도표 I 의 27번)로 구분한다면 전자는 남성의 원리와 Ganesá신을 나타내면서 생명을 상징하고 후자는 여성의 원리와 Kali신을 가리키며 파괴를 상징한다.⁵⁾

6) 십자가는 태양과 빛을 상징한다.

고대 갈대아인과 앗수르인들은 연합 십자가형(도표 I 의 8번)과 그것을 둘러싼 원(圓)으로 태양과 그 팔계(八界)를 표현했다.⁶⁾ 이들 광선으로 짝을 지어 놓으면 방사형 십자가가 되는데, 앗수르의 왕은 권위의 표시로 이 십자가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만자형 십자가에서도 sauvastika가 밤과 어둠을 상징한다면 swastika는 태양과 빛을 나타낸다. 또한 우리의 주제인 수레형 십자가(도표 I 의 30)도 빛과 태양을 상징한다 한다.

몇 년 전에 나온 중국문화사가 何新⁷⁾의 역작(力作)인 「神의 起源」

5) G. Birdwood, *Old Records of the India Office*, London 1891, p.xf.

6) cf. G. d' Alviella, *The Migration of Symbols*, London 1894. 참조

7) 何新(1949~) : 중국 浙江省 温州의 平陽에서 태어남. 문화혁명으로 인해 9년간 재지치기, 주물소작공 등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으나 곧 중퇴하고 漢語 교사 등을 거쳐 현재는 九三學社 중앙 연구실의 특별연구원 및 동방교류학회 이사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中國遠古神話與歷史新探」, 「藝術現象的符號」, 「龍: 神話與真相」, 「中國文化史新論」, 「何新集」 등이 있다.

은 상고시대의 중국을 위시한 고대 문화권의 다양한 십자가 형태를 태양의 상징으로 돌리고 있다. 그는 중국 신석기시대 기물의 장식 도안으로 흔히 나타나는 십자형 내지 다양한 십자 유형의 부호들을 태양으로 해석한다. 특히 swastika형 십자가를 태양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보고 있다.⁸⁾ 이러한 그의 견해는 불란서의 고고학자 d'Alviella가 유럽과 아시아 제 민족의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십자형 무늬를 태양신 숭배와 연관시키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⁹⁾

何新은 다음의 도표(도표 II)를 그리면서 그것으로 중국의 상고와 고대의 태양 도안을 종결하여 가상적인 논리적 변천 순서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¹⁰⁾

이런 도표들을 통해 그는 중국 상고의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 도기와 商, 周, 泰, 漢 등의 청동기와 기타 기물에 대량으로 나타나는 십자 무늬는 - 특히 헬라형, 라틴형 십자가와 만자형(도표 I 의 1번형, 2번형, 그리고 26번형) - 태양 내지 태양신 숭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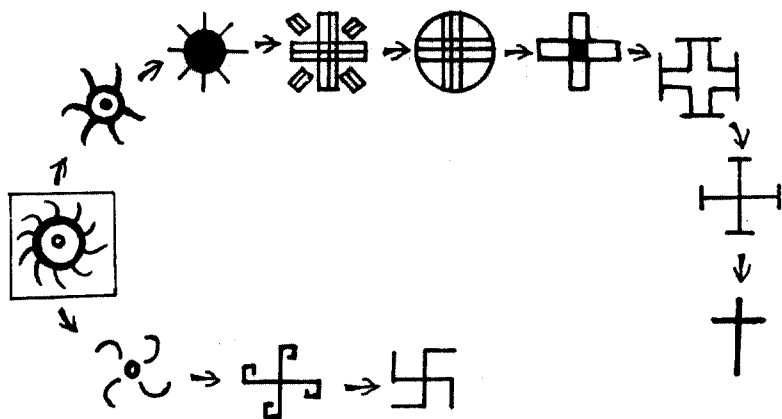
7) 그 밖에 고대의 문물 속에서 나타난 십자가는 다양한 상징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사람이 두 팔을 벌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날으는 새, 쌍두망치, 불을 켜는 활 모양의 부싯돌, 화살촉 등을 암시해 주는

8) 何新, 諸神的起源, 홍희 역, 「神의 起源」, 서울 : 東文選, 1990, 저자는 본서에서 중국 상고시대에 태양숭배가 어느 정도까지 유행되었으며, 그것이 오랜 중국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과 작용을 주는지를 살피고 있다. 그는 태양신의 숭배에 대한 증거를 십자형 무늬와 그림에서 찾고 있다. 특히 도언, 1장, 2장을 참조하라.

9) G. d'Alviella, op. cit., 참조하라.

10) 何新, op. cit., 37.



〈五五 Ⅱ〉

인유적 표현으로써 사용되어 오기도 했다. 그리고 고대 앗수르인들에 의해서는 그들의 하늘신(天神)인 Anu를 상징하기도 했다. 특히 감마형(만자) 십자가는 태양을 상징함에서부터 그것의 의미가 발전되어 천체 일반의 운동을 상징하게 되었고,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 자체, 스스로 움직이는 것, 예컨대, 물, 불, 바람, 번개 등을 뜻하기도 했다.

이 십자가형은 학자들로부터 가장 다양한 해석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태양(Goblet d' Alviella, 何新, Ludwig, Müller, Percy Gardner, Edn. B. Thomas, Max Müller, Henri Gaidoz), 하늘과 하늘의 신(G. d' Alviella, R. P. Greg), 물(Waring), 불 또는 불을 켜 낸 활 모양으로 생긴 부시(Emile Burnouf), 번개(W. Schwartz), 여성의 성기(George Birdwood), 양성(兩性)의 결합(J. Hoffmann), 팔리문자(Pali monogram, General Cunningham), 인도 사성의 통합(Fred,

Pincott), 앵무조개(nautilus, 헬라어 *πολύπους* 참조, Frederick Houssay), 날으는 학(Karl von den Steinen), 인도·유럽인의 상고신(de Zmigrodzki) 등이다.

2 십자가의 뜻

기독교 이전에 각 문화권에서 사용되었던 이러한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우주론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 말하자면 그것은 세제상적(世界像的)이고 세계관적(世界觀的)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좀더 구체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1) 십자가는 적도(適度)¹¹⁾의 의미를 지닌다.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는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를 통하여 양극단을 극복하면서 중도와 균형의 의미를 지닌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하는 중앙점(中央點)은 이 적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적도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는 수직선과 수평선이 도표 I의 그리이스형 십자가에서처럼 그 비율이 동일한데서 잘 드러난다. 이런 십자가형은 신석기 시대에 장식과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다.

2) 십자가는 통일(統一)과 종합(綜合)의 의미를 지닌다.

수직선과 수평이 교차하는 중앙점은 네 방향의 대립을 극복함은 물론 모든 것을 통일하고 종합하는 구심점과 원심점의 역할을 한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의 연합의 상징이며, 그것은 만유의 혼연일체를 제시한다.

11) cf. Aristoteles의 용어로는 'τὸ μέσον'이다.

3) 십자가는 조화(調和)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세계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또 세계가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정신과 포괄적인 의지에 의해 조성(造成)되었음을 보여준다.

4) 십자가는 중재(仲裁) 내지 중재자(仲裁者)의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적인 중재의 의미를 지니기 전에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중재와 중재자의 가장 보편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었다.¹²⁾ 종선과 횡선의 교차는 상이한 사상이나 견해간, 또 이질적인 집단이나 민족간을 중재하는 뜻을 표방하게 되었다.

5) 십자가는 또한 승리(勝利)의 상징이요, 세계 지배의 상징이기도 하다.

십자가는 바다나 바람, 하늘과 같은 자연물에 대한 지배일 뿐 아니라, 집단과 민족들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다.

6) 십자가는 생명(生命)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소위 이집트 십자가(도표 I의 6번)가 본래 뜻하는 바이었다. 그리고 Swastika(26번)에 드러나듯이 풍요와 안녕, 장수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¹³⁾ 십자가가 영생불사(永生不死)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대 민족에게서 공통적인 것이었다.

7) 그 밖에 십자가는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예컨대 충만이나 완전성을 뜻하기도 하고, 또 신성(神性)이나 주술,

12) Gerd Heinz-Mohr, *Lexikon du Symbole*, Freiburg 1991, "Kreuz" s.176.

13) Th. Wilson, *The Swastika*, 799.

법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상에서 우리는 기독교 이전의 전역사(前歷史)에 있어서의 십자가가 지니는 상징의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그것은 기독교적 십자가가 갖는 단일적인 뜻과는 달리 그 형태에서나 의미에서 매우 다양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다양함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은 십자가의 전역사가 갖는 공통점을 보게 된다.

그것은 첫째, 십자가형의 상징은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유럽 등 세계 전 지역의 대다수 민족들에게 보여지는 보편적인 고대의 부호 내지 상징이라는 점이다.

둘째, 그런 보편적인 십자가형의 상징은 다양한 형태로 변경되고 변천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리이스형과 라틴어형에서 감마형까지 다양한 모양이 나타난다.

셋째, 그런 보편적인 십자가형의 상징은 그것이 사용된 곳에서 거의 공통적인 의미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고대 제민족의 어떤 공통적이거나 유사한 세계관적 내지 인생관적 표출을 보여준다. 이런 공통적인 의미는 그들에게 십자가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또 우주나 신의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는 인간에게 숭배의 대상이나 축복의 상징으로 다가왔던 것이었다.

II. 기독교적 십자가의 상징화: 그 형태와 개념사(概念史)

1. '십자가'(十字架)를 나타내는 헬라어 'σταυρός'는 본래적인 의미를 따르면 지면에 수직으로 박힌 뽕죽한 나무 막대기를 지칭하는 말이었다.¹⁾ 이런 막대기는 고대 근동과 헬라 사회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거주지나 영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주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사용되었다. 이 때 이 막대기들은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적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으로 쓰여졌다. 두 번째 의미는 범죄자의 형틀로 쓰인 것이다. 즉 앓수르 등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으로 중범자나 반역자를 공개리에 처형하기 위해 매달아 죽게 하거나 아니면 이미 죽은 자를 그 곳에 꽂아 전시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참고로 대영박물관에 있는 앓수르의 살만에셀 3세의 청동문에 새겨진 부조를 보라).

이와 같이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 사회에 반역자나 적들의 시체나 머리를 뽐추한 막대기에 매달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관습에까지 소급된다.²⁾

2. 이처럼 단순히 막대기 하나를 수직으로 세우는 초기의 기둥 형태(헬라어로는 $\sigma\tau\alpha\upsilon\rho\acute{o}\varsigma$ 내지 '가시'(cf. 고후 12:7)를 뜻하는 $\sigma\kappa\acute{o}\lambda\omicron\psi$, 라틴어로는 *crux simplex*로 쓰인다) 외에 네 가지 형태가 주로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헬라 십자가'(라틴어로는 *crux quadrata*)(도표 I의 참조)로, 수직 기둥과 수평대의 길이가 똑같은 형태(十)이다. 이것은 비잔틴식 내지 시리아식 교회 건물에 종종 사용되었다.

두 번째 형태는 수직 기둥이 그것보다 짧은 가로대 위로 솟아나 있는 형태로서(十) '라틴 십자가'(*crux immissa*)³⁾라 한다. 이것은 로

1) 동사형 $\sigma\tau\alpha\upsilon\rho\acute{o}\omega$ 는 '기둥을 세우다', '방책(防柵)으로 둘러치다'라는 뜻이며, 또 그 합성어인 $\alpha\nu\alpha\sigma\tau\alpha\upsilon\rho\acute{o}\omega$ 는 '둘레에 방책을 세우다', '둘러치다'라는 뜻인데, 또한 이 두 동사는 동시에 '십자가에 처형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TDNT, VII, 581~584 $\sigma\tau\alpha\upsilon\rho\acute{o}\omega$ 는 $\sigma\tau\alpha$ 와 $\tau\epsilon\tau\eta\mu\iota$ 의 합성어이다.

2) cf. Judith 14, 1, 11.

3) 'crux immissa'라는 말은 '딱 들어맞도록 짜맞춘 십자가'란 의미이다.

마식 내지 고딕식 교회 건물의 토대를 이룬다. 우리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도 그의 머리 위에 죄패(罪牌)를 붙였던 점으로 보아 이 라틴 십자가였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십자 형태를 흔히 ‘그리스도 십자가’ 내지 ‘수난 십자가’(Passionkreuz)라고 한다.

세 번째 형태는 엑스 자(字) 형태(×)(crux de cussata)⁴⁾로서 ‘기운 십자가’ 또는 ‘안드레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드레 사도가 이런 형태의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형태는 본래 번째단 위에 진열된 나무 형태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삭이나 사렘다 과부의 제사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⁵⁾ 이 고대 사회에서 이 형태는 집이나 길르, 경계의 상징으로 쓰였다.

그리고 끝으로 타우자(字)형(┐) 십자가(crux commissa)⁶⁾가 있는데, 이것은 가로대가 수직기둥 꼭대기에 놓여진 것으로, 흔히 ‘성 안토니우스(st. Antonius)의 십자가’라고 불려진다. 그것은 이 사막의 수도자가 보통 짊고 다니던 지팡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십자가는 본래 고대 앗수르인이나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세계의 중심에 대한 상징으로 거룩한 기호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태양의 힘이나 풍요를 주는 비를 상징하기도 했다. 또 성경에서 에스겔 9장 4절과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나는 선민과 신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표도 이 형태로 이해되었다. 이 타우자 형태가 카타콤의 벽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학자들이 이 형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태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이상의 4가지 십자가 형태는 기독교 십자가 형태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형태이고, 그밖의 연구 형태들 가운데는 도표에 나타난 것이 비교적 빈번하게

4) ‘crux decussata’란 말은 ‘10字의 십자가’란 뜻이다. ‘X’는 10을 뜻한다.

5) G. Heinz-Mohr, *Lexikon der Symbole, Bilder und Zeichen der christlichen Kunst*, Freiburg 1991, “Kreuz” 177.

6) ‘Crux commissa’는 ‘서로 잇다른 십자가’란 뜻이다.

사용된 것들이다.

3. 오늘날에 있어서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근본적 상징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가리키며 또 그의 수난과 대속의 죽음을 지시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상징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기도 하다.⁷⁾

이 십자가는 이미 4복음서 모두에서 언급되고 있고(마 27:32ff, 막 15:21ff, 눅 23:26, 요 19:17ff.) 바울 서신(예컨대 빌 2:8)과 히브리서(12:2) 등에서도 하나의 물체로서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의 거치는 것이요(고전 1:23, 갈 5:11), 또 예수님의 구속의 뜻을 깨닫지 못한 추종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수치였다. 이렇게 처음에는 부끄럽고 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이해되면서 점차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십자가는 기독교 역사의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화(Ikonographie)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대상과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처음으로 카타콤의 벽에 십자가상을 새겼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서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이나 골고다 십자가의 형상이 아니었고 종말에 나타날 '인자의 정조'(마 24:30)이었다. 즉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하는 상징이었다.

7) cf. Encyclopaedia Britannica, "Cross", 811.

카타콤에는 헬라 십자가와 라틴 십자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간혹 타우형 십자가와 닳 모양의 형태(도표 I 의 7번)만 나타날 뿐이다. 사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주후 4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미 간헐적으로 이 십자가형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기독교적 기념물에서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십자가형(型)은 134년 Palmyra의 비문에서 나타난다. 2, 3세기에 나온 것 중 가장 오래된 십자가형 가운데는 보석으로 이루어진 비석이 세 가지가 있다.

가자(Gaza) 지역에서 나온 붉은 벽옥(碧玉)의 비석에는 벗은 몸과 서 있는 자세로 머리에 광륜(nimbus)을 두른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새겨져 있다. 또 홍옥(紅玉)으로 된 것도 둘이 있는데, 하나의 것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12제자가 새겨져 있고, 또 다른 것에는 이런 모습 외에 어린 양이 조각되어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물들 가운데 유명한 것은 3세기 초의 로마의 한 급사학교(로마의 고관대작들에게 시중드는 급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에서 나온 것이다(Museo Kircheriano, Rom). 이것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귀 머리와 또 그에게 경배하는 무리들과 함께 나타난다. 이 비석에는 “Alexamenos는 자기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새겨져 있다.

4, 5세기의 석관(石棺)들은 예수님을 묘사함이 없이 그냥 십자가 형태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모습들도 있는데, 예컨대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에 소장되어 있는 4세기 초에 나온 유명한 상아판(象牙板)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형을 보여주고 있다.

6세기에 와서 주목할 만한 것은 로마의 성(聖) Sabina교회의 목조 문에 각인된 십자가로서 여기에는 두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

는 모습으로 나타난다.⁸⁾

훗날 서방 교회에서 많이 발전한 시리아형의 십자가는 상징화의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를테면 강도들, 군병들, 해와 달 등이 상징화되어 있다.

이런 그림의 예는 로마의 성 마리아 박물관(S. Maria Antiqua)에 있는 벽화나 스위스의 Münchenwiler에서 나온 10세기 말 경의 석회석 부조에서 잘 드러난다(스위스 Freibourg의 Museum für Kunst und Geschichte에 소장)(도표 III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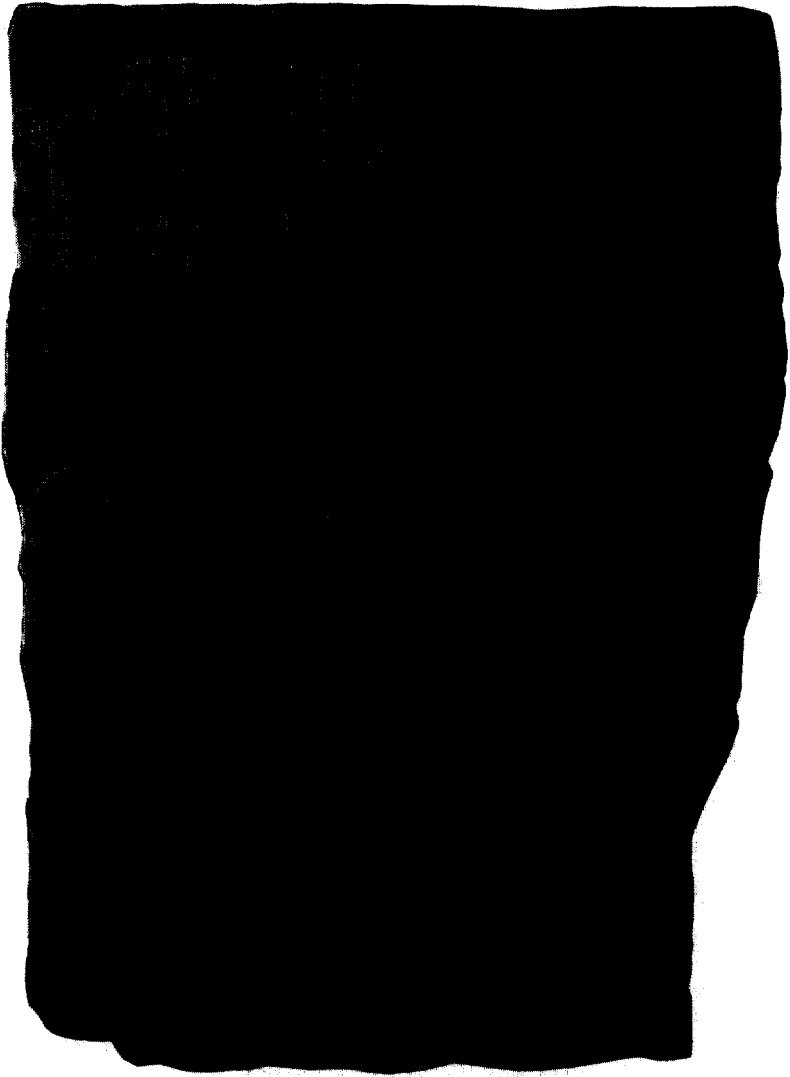
이 후자는 별장 Les Moines의 성(城)을 개축하면서 발굴되었는데, 그것은 본래 지하실의 벽면에 박힌 돌이었던 것이다. 높이가 60cm인 이 석회석 부조는 라틴식의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양 손을 뻗은 채 달려 계시고 그 좌우에 마리아와 요한이 경악과 슬픔 가운데 얼굴을 가리우고 서 있다. 그리고 십자가 위의 좌우에는 해와 달이 놓여 있고 그 사이의 중앙에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⁹⁾

비잔틴의 예술은 보다 강한 사실주의(寫實主義, Realism)에 머문다. Ravenna와 Rome에서 발견되며 서방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이 경향은 가능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이 십자가만 그리고 있다. 십자가를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그것을 새로운 창조, 생명나무, 세계의 축, 야곱의 사닥다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다.

십자가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십자가형에는 그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예를 우리는 1491년 피렌체에서 나온 나무조각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별들 사이에 십자가가 있

8) G. Heinz, Mohr, op. cit., 176~177.

9) cf. J. Zink, *Dein Tod ist unser Leben*, Eschbach 1987, 4ff.



〈도표 Ⅲ〉 스위스 Münchenwiler에서 나온 석회석 부조

고, 그 십자가의 날개에는 열두 명의 신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십자가의 여러 형태들 가운데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도표 I에 소개된 것들이다. 이렇게 볼 때 십자가형은 그것이 기독교적 상징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일반종교적 내지 세계관적 상징과 장식으로 쓰였고, 그 후에 기독교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초기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그저 십자가 모양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 여러가지 상징물들이 붙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 발전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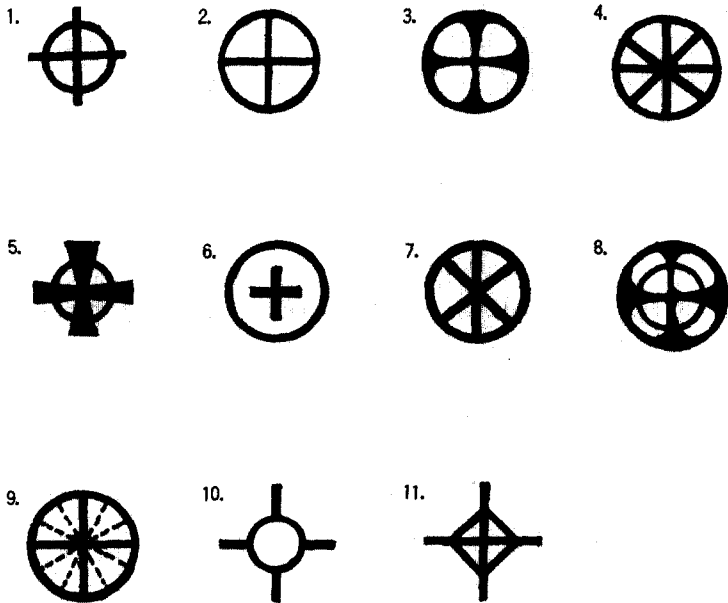
그래서 중세 천주교와 동방정교를 거쳐서는 이런 십자가형이 예배의식의 장식물이나 교회 직분의 상징물로 쓰이기도 했다.

Ⅲ. 원형의 테를 지닌 십자가의 상징과 의미

1. 원형 테 십자가의 형태와 역사

이제 우리는 원형 테 십자가형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논구해 보려고 하는데, 기독교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지만 기독교 이전의 뜻도 배제하지 않으려고 한다. 원형의 테를 지닌 십자가는 도표 I의 29번에서 32번에 이르기까지 잘 나타나듯이 크게 4가지 형이 있다. 그러나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면 여러가지 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번 형은 흔히 아일랜드형 십자가 내지 켈틱(celtic) 십자가로 칭해지는 것으로 주후 10세기를 전후한 아일랜드의 기독교적 비석 등에 많이 나타난다(예컨대 아일랜드의 Monasterboice의 Muiredach 십자가, 도표 VII 참조). 그리고 게르만족의 유산 가운데 서화(書畵, Bu



〈도표 IV〉

chermalerei) 등에 있어서 예수님의 후광(後光, nimbus)을 그릴 때도 이런 형태로 그리는 것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예컨대, Bitte des Centurio, Codex Egberti, Cod. 24, fol. 22r., Reichenau, um 980, Trier ; Maiestas Domini, Evangeliar des Ste-Chapelle, Ms. lat. 8851, fol. 1V., Trier, 984년경, Paris ; Thronender Christus, Abdinghofer Evangeliar, Ms. theol. fol. 60, fol. 12r., Wesergebiet, 10세기 후반, Kassel). 이것은 후광의 형태로 나타나는 2번 형과 3번 형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2번 형은 바퀴형 십자가로 의미적으로는 원이 주축이 되어 그 안에 살이 네 개 달린 형태와 십자가가 중심이고 밖으로 원형체가 둘러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독교 이전에 종종 쓰였던 것으로 게르만 민족이나 중국 민족 등에서 종종 나타나고, 그것은 빛과 태양을 상징한다. 기독교적인 것으로는 중세의 서화에서 예수님의 후광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3번 형은 2번 형보다는 조금 늦게 나타난 형태로 2번 형들보다 장식화한 후광의 형태이다. 이 형태도 중세의 서화에 예수님의 후광으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형태들은 예수님 외에 마리아나 어린양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대체로는 마리아나 요한같은 이들에게 2번 형의 단순한 형으로 했을 때 이중선으로 된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München의 옛 Frauenkirche의 창문 그림.

4번 형은 광채 십자가 내지 태양 십자가로 기독교 이전의 종교나 민족들에게서 태양이나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기독교 성화에서는 이것도 후광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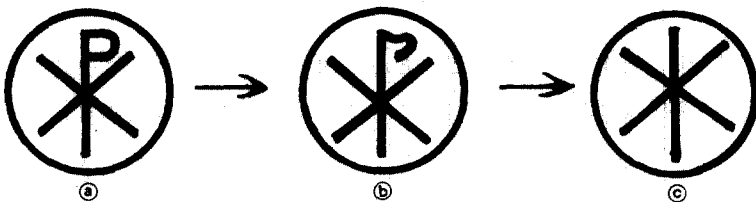
5번 형은 1번 형과 3번 형의 합성 형태로 이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의 모습보다 그의 십자가와 구속성을 더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형태는 11세기 독일의 서화에 가끔 나타난다.(예컨대, Evangeliar Bernwards von Hildesheim의 요한복음 서두의 그림, Hs. 18, fol. 174r., Hildesheim, 11세기 초 ; Köln의 작가 미상의 Evangeliar의 요한복음 서두의 그림, Ms. bibl. 94, fol. 154v., Köln, 11세기 중반, Bamberg 등)

6번 형은 후광으로보다는 교회 내지 교권의 상징으로 가끔 나타난다. 이것은 10세기 말 경 교권과 세속권을 다 장악한 Otto 황제를 묘사한 그림에서 나타난다(Kaiser Otto II., Einzelblatt aus einem Registrum Gregorii, Trier, 983년 직후, Chantilly ; Evangeliar Kaiser Ottos III. aus Bamberg, Reichenauer Schule, um 1000, Munchen, Bayerische Staatsbibliothek).

이 그림들에서 Otto 황제는 오른 손에는 세속권을 상징하는 긴 홀을 들고 왼 손에는 교권을 상징하는 이 십자형을 들고 있다.¹⁾

7번 형은 외형상 4번 형의 태양 십자가와 유사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이것은 도표 I의 33번 형과 34번 형인 예수 그리스도 서명의 십자가에 원형 테를 둘러친 형태이다. 이런 형태는 주후 4~6세기의 관(冠)이나 접시같은 데 나타났다. 그리고 비잔틴 시대의 군대들의 휘장이나 방패의 무늬로 나타나기도 했다(Justinian 황제 궁정의 모자이크화, S. Vitale, Ravenna). 이 형태는 시대적으로 발전해가는 방식은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과정으로 진전된다(도표 V 참조). 즉 점차 단순화되어가는 것이다.

〈도표 V〉



1) cf. W. Prielius, op. cit., 158.

㉔ 형태는 예컨대 주후 5세기 초반의 Constantius III의 석관(石棺)에 잘 나타난다. 이 석관의 전면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㉔ 형태의 후광을 갖고 서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뚜껑의 양쪽 끝 부분에도 이 형태가 새겨져 있다(Marble Sacrophagus of Constantius III, Ravenna, S. Vitale, Mausoleum of Galla Placidia).

㉕ 형태는 예컨대 Tomi의 주교 Paternus(517~20)의 은쟁반 무늬에 잘 드러난다. 이 은쟁반은 약 518년 경에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Leningrad, Hermitage).

㉖ 형태는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4세기 후반의 한 대리석관(棺)의 그림에 잘 드러난다(Fenari Isa Djami 부근에서 발견됨).

이 7번 형은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로마의 Lateran Museum에 소장되어 있는 비잔틴 이전의 조각을 참고하라).²⁾

8번 형은 예수님의 후광과 비문 등에 나타나는 십자가형으로 큰 원형 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원형 테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후자가 하나 내지 여럿이 있는 것이 있다. 아일랜드의 Clonmacnoise에서 나온 7세기의 한 비석에 소위 천궁 십자가(天穹十字架)가 이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도표 VI 참조).

그리고 12세기 말의 성(聖) Hildegard von Bingen의 기도서의 그것 중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묘사하는 중 예수님의 후광으로 이 형태의 십자가가 나타난다(Gebetbuch der hl. Hildegard von Bingen,

2)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J. Beckwith, *Early Christian and Byzantine Art*, Penquin Books, 1970, 19~20. Platees 32, 33, 79.

Clm. 935, fol. 24v., Mittelrhein, um 1190, München).

9번 형은 바퀴형 십자가와 태양 십자가를 합한 형태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각하고 그 배후에 빛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다(이에 대한 실례로는 *Crucifixus des Erzbischofs Gero, Köln* 10세기).

10번 형은 원형을 십자가의 수직선과 수평선이 마주치는 중앙에 위치시키므로 십자가형의 안정을 이루고 또 세계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권성을 묘사하려고 했다. 이 중앙의 원에는 흔히 태양을 상징하는 무늬가 그려져 있다(예컨대 *Ruthwell*의 십자가 조각, *Dumfriesshire, Südengland*, 685년 이전 ; 대주교 *Sigvald*의 연판(延板), *Cividale*, 762년과 776년 사이 ; *Cruz de los Angeles, Nord-spamien*, 808, *Oviedo*). 그래서 이것을 ‘태양 십자가’라 칭하기도 한다.

끝으로 11번 형은 1번 형의 변형으로 원형 테를 사각형 형태로 각이 지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원형 십자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각의 의미를 부각시키려 했다고보다는 원형을 변형의 모습으로 제시하고자 했고, 또 네 번을 연결시키는 것이 주안점이므로 여기에 포함시켜 본 것이다(예컨대, *Muiredach-Kreuz*, 10세기 초, *Monasterboice / Irland*).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원형 십자가는 대체로 주후 5세기 후반부터 12세기에 이르기까지 성화나 조각, 건축물, 비석 등에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런 원형 십자가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後光)으로 등

장하는데, 대체로 보아 5세기 후반 이전의 후광은 십자가 없이 원형만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원형 십자가의 초기에는 단순히 별다른 변형이나 장식 없이 똑바른 십자 형태가 나타나고 시대가 흐를수록 차츰 선을 겹으로 한 십자가나 원을 이중, 삼중으로 한 십자가, 또한 3번 형처럼 장식성을 강조한 굵은 십자가형이 등장하기도 한다.

원형 십자가는 중세 천주교의 예식과 의식이 복잡하게 되는 것과 비례적으로 색상, 무늬, 구성 등이 더욱 장식화 되었다. 점차 일반화된 경향은 십자가를 금색으로 칠하여 부각시킨 것과, 그것에 보석을 박아 화려한 치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이전의 십자가는 또한 원형 테가 없이 십자가만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간략한 역사적 고찰 외에 이 원형 십자가의 일반적 특성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은 형태에 있어서 원형 십자가에 나타나는 십자가형은 라틴 십자가형이 아니라 한결같이 헬라 십자가형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원이 균등한 모습을 이루고 있으므로 네 변이 같은 헬라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원형 십자가는 일반 십자가에 비해 안정된 구도를 지닐 뿐 아니라 각기 대립되는 방향으로 향하는 네 변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준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원형 십자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마리아나 요한같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향은 예수님이 원형 십자가의 후광을 지니면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후광을 지닌다. 그리고 제자들이나 마리아가 십자가 있는 후광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었다면 예수님은 이중선의 십자가를 지니는 것으로 묘사되어 차별화를 시키고 있다.

끝으로 이 원형 십자가가 후광으로 나타날 때에는 대체로 후광을 일반적으로 둥근 원 모양으로 그리므로 함께 나타난 것인데 비해, 비석이나 조각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독교 이전의 세속적 우주관에 영향을 받은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원형 십자가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예술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

2 원형 십자가의 기독교적·우주적 의미

원형 십자가가 우주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기독교 이전의 세속적 우주관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십자가는 무엇보다 우선 우주적 기호 내지 세계 기호로 나타난다.

우주 십자가로서의 원형 십자가는 우주의 신비적 본질을 잘 규명해 준다. 여기에서 원형은 무엇보다 먼저 우주의 시간적 흐름을 보여 준다. 그것은 출발점과 종결점이 없으므로 무한성과 영원성을 상징하여 주고 또 때로는 윤회와 세상의 항상적 쇄신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원형은 천체운동의 모습을 뜻하기도 하고, 나아가 시간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360도로 분할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징으로는 또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습이 있기도 하다.³⁾

원형 테가 그런 의미라면 십자가의 네 방면은 하늘의 네 방면인 동서남북을 뜻한다. 그리고 세계 십자가의 상징에서는 이 네 변은 춘하추동(春夏秋冬)의 네 계절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수레형 십자가를 태양 십자가라고도 한다. 이 십자가처럼 세계는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3) G. Heinz-Mohr, op. cit., 176. "Kreis"

되어 있고, 또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선과 악, 생성과 소멸로 질서 잡혀 있는 것이다. 원형으로 나타나는 시간이나 해(年), 그리고 역사는 이 네 변을 거쳐가면서 사계절을 만들고, 또 인생의 유년, 청년, 장년, 노년의 네 시기를 만들어 낸다.

원형과 네 변이 그런 의미라면 그 안의 중심은 - 때로는 수직선과 수평선의 단순한 교차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교차점에 하나의 새로운 내심원이 나타나기도 한다 - 우주의 구심점이요 원심점인 신(神)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플라톤주의자 Plotin은 중심은 원의 아버지라고 했다.

이런 수레형 십자가는 우주 내지 세계 십자가, 태양 십자가, 빛의 십자가라는 의미 외에 완전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의 정치적 의미도 완전성의 형상을 뜻하지만 이것의 유동적 의미는 완전성 예로의 운동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에 기초하여 기독교적 원형 십자가도 기독교적 우주론의 의미를 지닌다.

〈도표 VD〉 Clonmacnoise의 비석에 새겨진 천궁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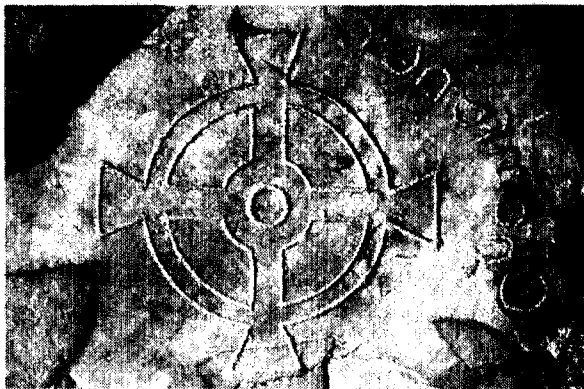


도표 VI에서 나타난 7세기 아일랜드의 천궁 십자가(天穹十字架)는 이런 성격의 원형 십자가인 것이다. 이 십자가는 아일랜드 Clonmacnoise에 있는 어떤 수도승의 무덤의 비석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 십자가는 상고시대의 비기독교적 의미와 함께 기독교 우주론적 의미를 잘 보여준다.⁴⁾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원형 테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안의 것만 단절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온전한 원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가운데에 있는 두 원형 테는 각기 4등분으로 단절된 모습이고 바깥의 원은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제일 바깥의 원은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안의 원은 우주 내지 세계를 뜻하고 이 원과 연결되어 있는 보다 작은 원, 즉 세 번째 원은 인간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대우주(大宇宙)인 세계와 소우주(小宇宙)인 인간의 모습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내면적인 온전한 원은 다 시금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는 인간과 세계의 중심이신 것이다. 이 원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은 인간과 지상의 원리인 시간의 흐름이나 생성 소멸의 법칙에 종속당하지 않는 모든 대립의 단절점이요, 또 인간과 우주의 고요하고 초월적인 중심점인 것이다.⁵⁾

그러나 인간과 우주는 십자가의 네 변에 의해 분할되어지고 장악당한 모습이어서,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시간과 계절, 또 생성 소멸

4) 아일랜드의 기독교 예술에 관하여는 R. Huyghe, *Christian Art in Ireland and Northumbria*, in: *Larousse Encyclopedia of Byzantine and Medieval Art*(ed. by R. Huyghe), New York 1981, 72~78.

5) cf. J. Zink, op. cit., 2.

의 원리, 행복과 불행의 삶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과 세계는 고요하지 못하고 유동적이고 늘 요란하다. 그러나 제일 바깥의 원은 이 모든 시간적 원리를 위시한 인간과 우주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윗의 싯구를 기억나게 한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 139:7~10).

이런 원형 십자가에서 원형의 테는 이런 의미와 함께 또 영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태양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밖에 성경의 창조 기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원형 십자가의 구조 속에 있는 세계를 보여준다. 즉 인류의 고향인 에덴동산에는 그 곳에서 나와 네 방향으로 흐르는 강이 있음을 말해준다(창 2:10~14). 여기에서 에덴동산은 네 강에 의해 십자 형태로 나뉘어져 있는 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큰 질서를 보여준다.⁶⁾ 그리고 이 원형의 테두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법칙은 세계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주셨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원형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세계와 하나님 간의 생명적 관계를 보여주고 생명력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 인간은 원형 테만 도는 것

6) *ibid.*, 4.

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고요한 중심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원형 십자가는 이렇게 연결성, 균형성, 질서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은 이러한 질서의 상(像)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타락의 죄성에 빠진 인간은 여전히 그 중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눈 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의 세계도 이 원형 십자가의 우주적 상징에서 보여지는 질서와 조화, 고요와 평온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정서와 사상, 경험과 삶 전체는 어떤 중심을 필요로 한다. 그 곳을 구심점으로 하여 그 곳으로 수렴되고 또 그 곳을 원심점으로 하여 그 곳에서 나오는 질서잡힌 그런 중심을. 특히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은 이 중심에 연결됨으로 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십자가는 외적인 혼돈을 공간으로 질서화시킨 것이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과 우주의 세계를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원형 십자가의 기독교적-그리스도적 의미

우리의 마지막 논의는 원형 테의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적 의미이다.

원형 테의 십자가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도표 Ⅶ의 Muiredach 십자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십자가는 9세기 내지 10세기의 것으로 대륙적 영향 하에 있고 십자가상 발전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⁷⁾

7) R. Huyghe, op. cit., 77.

이 십자가는 초석에서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적 장면들로 뒤 덮혀 있다. 원형 테가 십자가의 네 면을 연결시켰고 십자가 중앙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왼 손에 십자가, 오른 손에 천국 열쇠를 들고 계시는 모습이 보인다. 그 주님의 머리 위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것은 고양(高揚)되심의 상징이며, 또 신적 위엄의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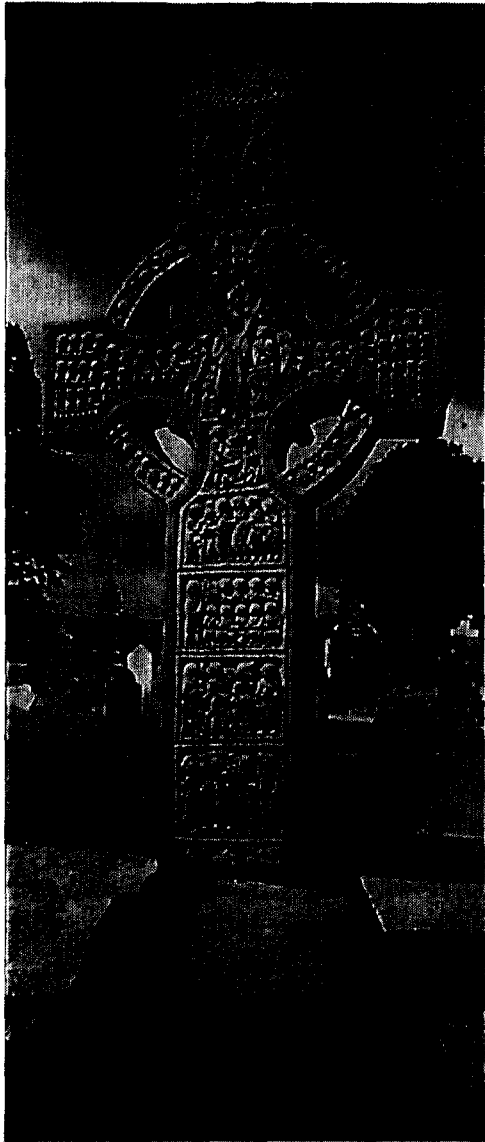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이 독수리는 태양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일랜드의 십자가들 가운데는 고대 켈트족의 태양신화의 유산이 남아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이들은 이 태양을 그리스도에게 관련시키는 작업을 시도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 ‘의로운 해’(말 4:2)이며 결코 지지 않는 참된 태양이시다.

우리가 이 Muiredach 십자가를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이 십자가의 원형이 운동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 원형 십자가가 천궁 십자가임을 보여준다.

이 운동성은 태양의 운동을 잘 나타내고 있다. 태양은 십자가의 형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떴다가 솟아서 정점에 이르고 다시 내려가 지평선 아래로 숨고, 또 거기에서 다시금 돌아서 뜨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 해뿐 아니라 일 년도 그러하다. 어쩌면 인간도 세상에 와서 인생의 정점에 이르고 늙어죽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영원의 세계로 가는 것으로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이런 시간과 인생, 세계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는 시간을 다스리는 Christus Chronokrator(시간의 지배자인 그리스도)이시고, 시간과 함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Christus Pantokrator(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원형의 테는 시간과 역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도표 VII〉 아일랜드의 Monasterboice의 Mulredach 십자가

것처럼 태양을 의미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 그림에서는 독수리 외에 이 원도 태양을 의미한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성을 말한다면 이 원형 테는 그의 주권성을 뜻한다. 십자가가 대속자와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원형의 테는 주권자시요, 모세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실 뿐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단 7:9, 13, 22)요, 태초에 이미 계신(요 1:1) 세상 주관자(Pantokrator)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해(日)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한다. 태양이 모든 민족에 비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구원의 소식이다.

또 상징으로서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성과 항상성, 그리고 영원성을 나타낸다. 나아가 태양이 빛, 온난, 생명의 근원이듯이 예수님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스함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생명이 되신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는 공의와 연결되듯이 예수님은 공의의 주(主)가 되신다. 바티칸의 동굴에 있는 4세기의 모자이크화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한 광채 속에 태양 마차를 지닌 태양신(太陽神) Helios로 묘사한 그림이 있다.⁸⁾ 무엇보다도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주권자로 묘사하는 것이다.

천궁 십자가와 태양 십자가의 의미 외에 이 십자가의 원형 테가 수레바퀴를 의미하면서 이 십자가는 바퀴 십자가도 되는 것이다. 바퀴는 세속적 상징학에서는 윤회나 재생의 의미가 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는 우선은 그의 완전성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8) 기독교 미술사에서 가슴에 찬란한 태양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 인물들 가운데는 성 Nikolaus von Tolentino, Thomas von Aquino, Vinzenz Ferrer 등이 있다.

에스겔의 여러 구절(1:4, 15~21, 27, 10:2)과 다니엘서(7:9) 등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 그리고 현현(Theophanie)을 의미한다.⁹⁾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현현은 고정적이거나 고착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어디에나 가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의 보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달렸으므로 어디에나 나타나셔서 간섭하시는 모습, 즉 하나님의 보좌의 유동성과 유연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 특히 부활하신 모습과 관련을 지어 - 온 세상에 자유자재로 주권적으로 임하심을 뜻한다.

이런 성경 구절에 기초하여 이 바퀴는 하나님을 수행하는 그룹의 바퀴로 보고 이것을 통해 그룹을 나타내고자 했다. 또 에덴동산을 그린 그림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그룹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들이 그려지기도 했다. 나아가 바퀴는 굴러가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계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원형 테 십자가형이 지니는 가장 빈번하고 가장 의미있는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nimbus)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 후광은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기독교 성인들에게도 나타난다. 그러나 십자가 형태를 지닌 후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흔히 비둘기 모습에서)에게도 원형 십자가형으로 후광을

9) 이것에 관한 그림들이 기독교 미술사에 많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애굽 Baouit에 있는 벽화, 갑바도기아의 Göreme에 있는 벽화, 불가리아의 Batschkovo에 있는 벽화, 유고슬라비아의 Lesnovo에 있는 벽화, 그리고 1510년 경에 나온 Raffael의 그림(Pitti, Florenz) 등이다.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 원형 십자가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이 나타나는 것은 5세기 후반부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후광은 종종 십자가는 피빛색이나 황금색으로 그려지고 원형은 빛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이미 4세기에 어린 양에게 십자가 후광이 그려진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¹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원형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했을 때 그들은 그것에서 여러가지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또 부여했다. 우선 십자가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의 구속주 되심을 묘사하고자 했다. 수직선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되시고자 위에서 강림하시고 또 죽음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시는 하향의 모습과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상향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수평선에서는 하나님의 인간되심을 가로질러 인간의 동등함과 이웃됨을 보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묘사하였다. 이런 묘사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징표 부여요 신앙 고백인 것이다. 그리고 원형의 테를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들과 권세들 위에 계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고 고백한 것이다(골 2:14~15). 즉 예수님의 하나님되심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구주(救主)이시며 주(主)이다.

10) cf. Das Neue Jerusalem, Apokalypse, Ms. bibl. 140, fol. 55r., Reichenau, 1020년 이전. Bamberg. 설명은 H. Fillitz, Propyläen Kunstgeschichte. Das Mittelalter I, Berlin, 145. 이 책은 중세에 나온 다양한 십자가형을 수록하고 있다.

결 론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지만 오늘날의 인간들은 상징과 거리가 멀다. 이 시대의 정신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만을 중시하고 명확한 의미와 분명한 모습을 띤 것들만 알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주의와 실제성 중시 풍조는 상징이 지니는 심오한 의미와 함축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 쓰려고 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정신과 이상을 더욱 천박하게 만들고 만다.

인간 정신이 수학적 정확성과 기하학적 명료성만 지닌다면 비록 달나라까지 가는 첨단과학을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그 곳에 가서 발견하는 것은 수북이 쌓인 먼지뿐인 것이다.

사실 상징은 실체나 자연에 대한 어떤 정밀한 묘사보다도 그것들에 대한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복잡한 실체나 관념을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것들과 관련 있는 기호나 개념 또는 어떤 물상(物象)에 의해 그 의미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기묘한지 모른다. 이러한 상징은 단순한 지적 기호나 난삽하고 고상한 장난이 아니라 의미 전달의 신속성과 은근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어떤 특수한 종교적, 정신적 또 감정적 효과를 높이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상징들이 비록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나 그것이 지시하는 진실은 때때로 매우 깊은 경지까지 이른다.¹⁾ 십자가는 상고시대로부터 상징과 상징예술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였다.

특히 그것이 기독교적인 의미로 일반화되어 쓰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고 나아

1) B. Goudzwaard, *Idols of Our Time*(「현대, 우상, 이데올로기」, 김재영 역, 서울, 1987, 103.)

가 기독교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²⁾

기독교적 상징 가운데 십자가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빈번하고 더 중요한 상징은 없는 것이다. 십자가 상징 하나에 기독교 복음의 모든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십자가의 상징은 이미 성경에서부터 쓰이고 있다. 비록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십자가’를 언어적 상징으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가 이 한 마디 상징적 개념을 사용했을 때 당시 그의 청중들은 이 개념 속에 무슨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기독교는 이 ‘십자가’ 상징을 언어적인 것인 것으로뿐 아니라 회화적인 것으로 사용하여 성화나 조각, 무덤의 비석이나 교회 건축, 그리고 장식용으로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묘사함은 물론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우리는 긴 논의의 과정을 통해 우선은 이런 십자가형이 기독교 이전의 여러 민족들에게서 태양 등을 비롯한 갖가지 대상이나 실체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였음을 보았고, 다음으로 기독교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논구해 보았다.

그러는 가운데 십자가의 다양한 형태를 의미적·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원형의 테를 지닌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았는데 기독교적·그리스도적 의미로 쓰일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심과 주권자 되심이 합일된 형상임을 규명하였던 것이다.

2) cf. Ko. Künstle, *Symbolik und Ikonographie der Christlichen Kunst*, in: E. Kaemmerling(hrsg.), *Ikonographie und Ikonologie* Köln, 1979, 64~80, 그는 기독교 상징과 예술이 세속적인 것과 다른 것은 그 작품의 목적이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항상 어떤 종교적 관념들을 중개하는데 있다고 보았다(66).

다른 십자가 형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성만, 즉 그의 낮아짐과 고난, 그리고 죽으심만을 나타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 한 면만 부각시켰다면, 이 원형 십자가는 그의 구속성과 아울러 그의 주권성, 말하자면 그의 구세주 되심과 아울러 그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원형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므로 특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다. 이 원형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상징하여 니케아신경의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임을 말해주는 상징인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니케아회의 이후부터 이런 원형 십자가가 기독교 예술에 등장하고 있음을 본다. 십자가의 형태가 중세 교회의 예식화나 형식화에 발맞추어 더욱 다양화 되어지고 장식화 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또 실제로 그릇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튼 십자가는 유대인에게서처럼 거치는 것이나 헬라인에게서처럼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요 자랑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더이상 수치스러운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를 별의별 모양으로 그리고 새기고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전 1:24)인 것이다. 그 밖에 이 십자가 상징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이런 의미를 G. K. Chesterton과 B. Goudzwaard가 말한 원형 십자가의 의미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이 연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 전자는 이 원형 십자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은 본질상 완전하며 무한하다. 그러나 원은 그 크기에 있어서 영구히

고정되어 있다. 원은 결코 더 작아질수도 더 커질 수도 없다. 그러나 십자가는 중심에서 교차하고 또 모순을 지니고 있지만 그 형태의 변형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또 십자가는 그 중심에 역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 원은 결국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한계 속에 갇혀 있지만, 십자가는 사방으로 개방되어 있다. 십자가는 자유로운 나그네들을 지지해주는 버팀목인 것이다.”³⁾

그리고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후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이 상(像)에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세계 속에서 속박하는 원들과 짝 조여오는 악순환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위한 진리가 있다. 그것은 유일한 탈출구는 고난 당하시고 극복해 내신 우리의 메시야의 십자가 안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⁴⁾

물론 이 두 사람의 해석은 원형 십자가의 본래적이고 전통적인 의미를 제대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들이 십자가를 해석한 것은 맞지만 원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형은 그들이 주관적으로 보고 느낀 것처럼 인간을 묶고 가두고 있는 속박들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억지 해석에 내가 한 가지 동의하고 위로받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참자유의 길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원형 테는 우리의 삶과 세계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성을 뜻하며 따라서 그의 주권을 우주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해야 함을 가르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 원이 우리의 인생과 세계를 뜻할 때 우리는 내심원인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이 허무와 방랑의

3) G. K. Chesterton, *Orthodoxy*, New York 1959, 28~29.

4) B. Goudzwaard, op. cit., 103.

생활에서 떠나 이제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 이 인생과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함을 교훈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이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독백처럼 구속과 영생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요 19:30) 것이었다.